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

발제자: 조송희 목사(주안에 교회)

1. 서론

짧은 페이퍼를 통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중요 원리를 살펴서 다원주의와 현대성의 거센 도전을 받는 시대에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의 설교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한다. 두 가지 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출판된 「Martyn Lloyd-Jones: His Life and Relevance for the 21st Century¹⁾」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외손자인 Christopher Catherwood가 썼고 작년 말에 번역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²⁾」는 박사의 딸인 Elizabeth Catherwood와 Christopher Catherwood가 그의 여러 설교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간결한 배경설명과 함께 엮은 것이다. 이 두 책을 중심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원리들을 살펴본다. 내용들은 박사가 설교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것들이다.

2. 박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오래된 복음

Martyn Lloyd-Jones: His Life and Relevance for the 21st Century의 1장 제목이 Martyn Lloyd-Jones: A Man for All Times로 되어 있다. 모든 시대를 위한 사람(사역자)으로 타이틀이 나타나는데 이는 설교자로서의 탁월함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그의 철학 때문이다. 박사는 설교 메시지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담겨질 복음적 세계관은 시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한다. 그는 복음의 세 가지 신념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것은 인간, 하나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시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것이다.⁴⁾ 그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삶의 외형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 문제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본 문제가 현재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오래된 복음의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합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오래된 복음의 메시지를 현대 세계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 이유들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자랑하는 모든 변화는 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 자신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의 활동 양식만 변화된 것입니다. 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세계 고전 문헌은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특정 시기 사람들의 특정한 국면만을 다루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다루기 때문입니다.⁵⁾

박사가 지적하듯이 과학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변화는 본질적으로 외형적인 것에

1) Christopher Catherwood, *Martyn Lloyd-Jones: His Life and Relevance for the 21st Century* (Crossway, 2015)

2) 마틴 로이드 존스, 정상윤, 정근두, 전의우, 김귀탁 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복있는 사람, 2015)

3) Martyn, 15p.

4) 그리스도 중심, 100p.

5) Ibid., 110p. (복음은 여전히 적합한가 1947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국한되어 있다. 웰스가 지적한대로 통신 수단, 교통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이 축소되고, 정보 접근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제한적이지만 전지성, 편재성이라는 초월적 능력이 사람에게 부여되었다.⁶⁾ 그럼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피상적이 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엄치나 가치 있는 지식을 추려내기는 어려워지게 되었다. 소외와 정신적 피폐와 함께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확장된 영역을 죄의 문제를 가진 인간이 감당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로이드존스는 셰익스피어 희곡이 시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래된 문학이지만 현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전히 발견한다고 말한다.⁷⁾ 하물며 구약, 신약과 같은 오래된 복음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보편적 문제를 읽게 되는 것이다. 복음에는 예서와 야곱의 질투, 탐욕, 살인이 등장하고,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욕망의 보편적 문제가 현대에도 그대로 드러남을 역설한다. 외형적 배경은 다르지만 성경의 인물에서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가치와 능력을 떨어뜨리고 손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그들의 지식과 능력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들은 원자를 분열시키는 연구도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죄를 생각해 낼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죄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 인간은 태초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모순된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대인에게 계속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⁸⁾

로이드 존스는 현대인에게 오래된 복음을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동일하게 바라보신다. 때문에 교회가 현대적인 주제, 방법론에 집착해서 설득하려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본다.⁹⁾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절박하고 결정적인 질문은 그 옛날 욕이 제기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정치, 경제 또는 교육 문제나 주택 부족, 파업사태와 같이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 배후에는 우리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¹⁰⁾

박사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신의 행복, 살고 있는 땅의 상황에 있지 않음을 늘 강조하고 있다. 본질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런 복음에서 벗어나 궁극적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치유책이나 방법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린다.¹¹⁾ 복음만이 사람의 문제와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6) 데이비드 웰스가 신학 실증에서 지적한바와 같다.

7) 그리스도 중심, 110p.

8) Ibid., 112p. (복음은 여전히 적합한가 1947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9) 여기에서 교회의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파생한다.

10) 그리스도 중심, 112-113p.

로이드 존스는 최신에 치료법이 질병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사로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영혼의 질병, 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의 유행, 방법론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람의 소비주의 욕구에 호소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0년 동안 교육, 지식, 문화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악과 불의를 바로잡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모든 법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상황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청소년 범죄, 음주, 도박, 음행, 그리고 별거와 이혼을 낳는 부부간의 불화가 훨씬 더 증가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¹²⁾

이처럼 우리의 상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중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 또한 완전히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후 세계나 과학 시대나 기독교 후기 시대나 하는 말들로 포장되어 교회의 활동과 사교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헛소리입니다.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¹³⁾

로이드 존스는 현대 세계의 절망적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한다. 그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아는 일이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도 큰 곤경 속에 빠진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저를 도우십니다. 그 분은 항상 모든 면에서 저를 만족시킵니다.¹⁴⁾

박사는 오래된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설교한다. 오래된 복음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며 현실에 가장 적절하다(relevant)고 말한다. 복음이 인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박사는 현대 상황에 맞는 적실성을 얻기 위해 최신 사회이론이나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통해 접점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¹⁵⁾

3. 오래된 복음의 협소함

로이드 존스 목사는 현대성을 갖추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지난 세기에 걸쳐 과학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과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일부 교리를 타협하

11) Ibid., 113p.

12) 그리스도 중심, 115p. (복음은 여전히 적합한가 1947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13) Ibid., 49p. (대안은 없다, 1969 “설교와 설교자”)

14) Ibid., 116p. (복음은 여전히 적합한가 1947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15) Martyn, 75p.

고, 예수의 본보기에서 벗어난 것을 박사는 한탄한다.¹⁶⁾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설교에서 권면한다. 복음이 협소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복음의 관심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같이 복음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천착하는 것이 복음의 협소함이다.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계셨다. ... 예수님은 부적합한 것은 무시하셨다. 적합한 것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에만 전적으로 헌신하셨다. 단순한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영혼의 필요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관념이나 개념과는 철저히 모순됩니다. ... 성도 여러분은 예술과 과학에 대해 정통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권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분에게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 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처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니깐요.¹⁷⁾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영혼의 문제이다. 박사는 복음의 협소함은 영혼과 관계된 인격적(personal)인 성격임을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예로 들면서 복음의 인격적 성격을 말한다. 여러 가지 대화, 논쟁이 오고 간 후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의 말씀은 여인이 살아온 삶을 아셨음을 드러낸다. 구원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임을 말한다. 그는 설교에서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대상을 잘 아는지를 묻는다. 그 분을 통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고,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박사는 복음의 협소함이 행실과 행함으로 이어지면서 더 좁아진다고 한다. 복음은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을 강력히 제시한다. 삶의 방식은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¹⁸⁾ 복음의 협소함은 적극적 명령에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산상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적극적 명령이다. 로이드 존스는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범주를 좁히고 초점을 맞추라 조언한다.¹⁹⁾ 산상수훈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로 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실천으로 이어가는 복음의 명령을 전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런 실천이 교리에서 시작되어 이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에베소서 설교를 보면 교리에 머물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설교한다. 순서는 교리에서 시작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는...”이라는 말로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골짜기로 내려와 악령들에게

16) 그리스도 중심, 61p.

17) 그리스도 중심, 65p. (복음의 좁은 길, 1935 “에브라본에서 전한 전도 설교”)

18) Ibid., 68p.

19) Ibid., 69p.

시달리는 불쌍한 소년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가 이 위대한 교리를 적용시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²⁰⁾

복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사역인 교리가 먼저이고 그 분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를 성화의 과정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교리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실천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영위해야 할 삶의 특성과 본질은 그것이 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교리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낸 어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리의 적용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의 불변의 관례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분명히 알기 전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신약성경의 성화의 교리와 관련하여 볼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²¹⁾

실천과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고, 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구원과 그 목적, 약속이다. 이것이 박사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원리다. 이렇게 복음은 교리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관계,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져 나간다. 복음이 우리 마음(heart)에 원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거듭남, 새로운 본성과 생명을 필요로 한다. 산상 수훈도 그 분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처럼 세상의 빛, 소금이 되는 것을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이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자연인이 아닌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기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루십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알려 주십니다. 또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갈망과 열망을 일으킵니다.²²⁾

4. 박사에 설교에 나타나는 복음의 총체성

박사는 복음은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상황에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성도는 삶 전체를 복음의 영향 하에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분법적으로 특정 영역에만 복음을 적용하는 혼란에 빠지지 말라고 한다.

20) D. M. 로이드 존스, 지상우 역, 에베소서 강해: 4권 영적연합 (CLC, 2000) 10p.

21) 영적연합, 14p.

22) 그리스도 중심, 138p. (산상 설교의 실천, 1950-52 “산상 설교”)

삶 전체, 역사 전체,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창조와 마지막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려 줍니다. ...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범위가 얼마나 광대하고 영원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크고 절대적인 교리의 부요함을 되새기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서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출발하여 더 나아가야 합니다. 큰 맥락 안에서 복음을 보아야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되며, 우리 삶 전체를 그 통치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²³⁾

박사는 인간 세계 전체가 복음에 포함되며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설교한다. 또한 인간은 정신, 마음, 의지로 구성되는데 복음은 이를 다 포괄한다. 지성, 지각만 사용하는 것은 복음의 포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한다. 박사는 교리, 신학적 관심,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은혜나 평범한 인정도 찾기 힘들다고 말한다.²⁴⁾ 특정한 교리를 놓고 싸우며 논쟁하는 자들은 머리로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논쟁하고 추론하며 심지어 '옹호'했던 복음에 단 한 번도 붙잡혀 본 적이 없기에,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지적인 취미에 불과합니다.²⁵⁾

박사는 의지에만 머무는 것도 복음의 포괄성과는 먼 것으로 본다. 그는 전도에 있어서 찰스 피니가 사용했던 '결단(decisions)'이라는 말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²⁶⁾ 결단이 초청의 결과이거나, 사람을 몰아붙여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포괄적 신앙이 압박에서 나온 결단의 결과일 수 없다고 박사는 생각한다. 사단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박사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머리, 가슴, 의지에 모두 영향을 주며 세 가지가 균형 잡히고 바른 순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²⁷⁾

순서에 있어서는 머리와 관련된 진리, 복음의 메시지가 우선이라고 말한다.²⁸⁾ 사역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말씀의 전파인 것이다.

진리가 첫 번째이고, 교훈의 본이 첫 번째이며, 복음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성과를 내고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보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진리를 설교하라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이 메시지, 이 교훈의 본, 말은 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 받았습니다. ... 교회가 진리를 첫 자리에 두는데 실패할 때 어김없이 영적 괴물이 생겨납니다.²⁹⁾

23) 그리스도 중심, 150p. (정신과 마음과 의지, 1963 "영적 침체")

24) Ibid., 151p.

25) Ibid., 152p. (정신과 마음과 의지, 1963 "영적 침체")

26) Martyn, 64p.

27) Ibid., 155p. (정신과 마음과 의지, 1963 "영적 침체")

28) Ibid., 156p. (정신과 마음과 의지, 1963 "영적 침체")

박사는 진리의 선포를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여겼다. 사람은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의 위치와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원하고 열망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신과 지각으로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대로 살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이다. 박사는 감정, 의지에 직접 접근하기 보다는 진리를 통해서 정신의 영역에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에서 시작하여 감정과 의지로 이어지기를 이야기한다. 진리에 참되게 반응하면 감정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관점이다.³⁰⁾ 그렇다고 지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진리를 전함으로 지성에서 출발하여 감정과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 복음은 인격전체를 다스리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지성에 호소하는 것은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전해지는(unction) 설교인 것이다.³¹⁾ 불붙은 논리는 성령의 임재로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지는 신학이다. 18세기 부흥의 뜨거움과 칼빈의 논리가 결합된 것으로 보며 생명력으로 표현되는 건전한 교리를 의미한다.

5. 박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성경의 권위와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

박사는 교리는 늘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진리는 권위의 문제이다. 여러 주장들이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시대에 현 시대의 최고 권위를 이성이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객관적 지식의 권위가 최상위에 있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지성을 부정하는 다른 지성과의 논쟁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지성이 마귀의 지성에 미혹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본다.³²⁾

박사는 기차여행 중에 간질병 발작을 일으킨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심장병을 일으켜서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로이드 존스는 의학적 지식과 진리에 입각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실과 의학지식에 기초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힌다. 사람들은 박사가 말할 수 있었던 근거, 의학적 지식을 알지 못했지만 박사의 말을 그냥 믿었다. 이 경험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위의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권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상에는 독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확신 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자기의 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권위의 근거를 알지 못한 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식에 기초를 둔 어떤 권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절실한 요구에 대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³³⁾

29) Ibid., 156-157p.

30) K교회의 L목사는 감성목회를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감성을 터치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한다.

31) Martyn, 34p.

32) 에베소서 강해, 8과. 영적전쟁. 235p.

33) Ibid., 245p.

박사는 성경자체가 그 권위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 없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이다. 마귀와 싸우고 사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 얻어진다. 성경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권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침반과 지도와 같은 방향과 권위를 성경이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⁴⁾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설교나 관점 자체가 권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것조차 말씀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성경의 레퍼런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⁵⁾ 신조나 신앙고백을 말할 때도 성경의 레퍼런스에 명확히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태도는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 심지어는 가족 모임에서도 나타났다.

박사는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를 설명하도록 밀어붙이곤 했다. 오류나 약점이 있고 근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드러나곤 했다. 물론 사랑으로 목회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³⁶⁾

박사는 가정 안에서도 토론을 즐겼다. 캠브리지 근처의 딸의 집에서 식사하며 즐겼던 일들 중 하나는 자녀들이 토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박사는 자신이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지지하지 않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는 그 주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손자 손녀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지점까지 나아갔고 토론은 생명을 더해갔다. 하지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입장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쟁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믿는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³⁷⁾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권위가 있고 모든 믿음과 주장은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므로 자신의 설교나 관점에 부적절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사는 원하지 않았다. 사실 박사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로이드 존스의 외손자가 말하기를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방문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 몇 마일 떨어진 Langham Place의 All Souls Church뿐이라고 한다. 다른 교회 소속된 사람들도 주일 저녁, 6시30분 예배에 박사의 설교를 듣기위해 왔다고 크리스토퍼 케이터우드는 증언한다. All Souls소속의 보좌신부들도 왔는데 그 중에는 성공회의 젊은 신학자였던 James I. Packer도 있었으며 Packer의 회고에 따르면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다고 전한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설교와 관점이 하나의 권위로 자리 잡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은 성경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일관했다.

청교도 저작이나 주석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박사는 자신이 Bible Calvinist로 자처하며 칼빈의 체계를 그냥 따라가는 system calvinist로 보질 않았다.³⁹⁾ 성경에 기반한 교리가 없는 믿음과 실천은 사람이 만든 신학구조에 기반을 두게 된

34) Ibid., 248p.

35) Martyn. 31p.

36) Ibid., 44p.

37) Ibid., 44p.

38) Ibid., 31p.

다는 것이 박사의 생각이었다.

6. 박사의 설교에 나타는 복음의 적실성(Relevance): 보편적인 사람의 문제를 다룸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강해로 설교하면 시간과 상황에 늘 적합하다 보았다. 당시에 도 기독교가 상황,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기독교 메시지가 시대와 무슨 상관인지 묻는 시대여서 교회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었다. 박사는 현대성을 갖추어야만 설교가 시대적 연관성을 갖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경향에 반박한다. 박사는 복음이 일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특별한 상황 모두에 적합하다고 말한다.⁴⁰⁾

또한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교회가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니며 그것으로 시작하지 말라고 말한다.

성경적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이 진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서 끝나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수평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라고 역설합니다. 단순히 세상과 사람들만 보는 것을 그만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그 문맥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⁴¹⁾

박사의 설교에는 성경적 순서에 대한 관점이 깔려있다. 그 관점은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상황에도 궁극적인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세상은 개혁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냉전의 시대였을 때에도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막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정치나 다른 입장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목사는 교회의 역할은 말씀의 선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며, 정치참여와 세상에서의 삶은 복음으로 변화된 교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일이라고 보았다.

교회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건간에 죄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데로 인도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 제1차적인 임무가 손상당하거나 장애를 받거나 교회 자신이 그가 하고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바로 그 일에 대해 문을 닫지 않기 위하여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⁴²⁾

39) Ibid., 31p.

40) 그리스도 중심, 188p.

41) Ibid., 189p.(세상에대한 기독교의 메시지, 1954-62 “에베소서 강해: 영적 화해”)

42) 에베소서 강해, 6과 영적생활, 394p.

박사는 한 예로 복음이 노예제도의 호불호를 말하지 않고, 노예들이 전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머물라 말하는데, 이것이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옳고 말한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를 중심에 두지 않는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노예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와 회복된 성도의 품격을 그리스도인인 노예가 보여주며 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박사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을 폐지한 것은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지적한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었던 것이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직설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의 양면 모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는가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양편에 서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십시오. 그는 온갖 사회 가운데서 태어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는 노예제도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가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⁴³⁾

박사는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인간관계가 처음 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야 제자로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박사는 복음이 세상과 적실성을 갖는 것이 문제의 뿌리를 언급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증상의 원인을 다루기 때문에 적실성을 가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본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에 전한 설교에서 암살의 이유를 미국에서 통합이라는 현안을 케네디가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라 언급한다. 당시 인종차별 문제, 철의 장막으로 대립된 국가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열과 전쟁으로 가득 찬 세상의 악한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⁴⁴⁾

신문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같은 사건을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사건이 매우 극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외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일로 가득합니다. ... 성경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저는 이 특정 사실을 조금이라도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범죄는 단지 투쟁, 전쟁, 반목, 비난, 미움의 한 표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범죄는 내면에 있는 악한 마음이 추하게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⁴⁵⁾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람이 범하는 오류가 개인과 집단, 개인과 국가 사이를 날카롭게 구분한다는 것이라 지적한다.⁴⁶⁾ 그는 국가가 개인이 모인 집단이며 확장이라고 본다.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한다. 국가, 작은 단체, 가족의 단위를 살펴

43) 에베소서 강해, 6과 영적생활, 404p.

44) 그리스도 중심, 293p.

45) Ibid., 292-293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46) Ibid., 294.

보면 파벌, 집단, 반목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말한다. 박사는 이렇게 분열과 끔찍한 전쟁, 비극과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한 가지라고 말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인간 본성, 교만 때문인 것이다.⁴⁷⁾

이제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한 가르침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은 첫 부분에서 형이 동생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질투는 교만의 자식입니다. ...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요점입니다. ... 성경은 인간 본성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⁴⁸⁾

박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교만의 양상을 시대상황 속에서 이야기 한다. 피부색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권력으로 인한 교만을 말한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갈등을 언급한다.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 감춰져 있는 탐욕의 문제도 언급한다.⁴⁹⁾ 권력에 취해 있는 것은 단체, 국가, 개인 모두가 동일하다고 본다. 지식에 대한 교만도 이야기한다. 지식 세계에서도 분열과 차별이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다. 권력, 교만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다. 세상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없으며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갈등상황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세상은 기껏해야 적대 행위를 잠시 중단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휴전 상태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이 모색하는 이런 해결책 이면에는 오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입니다. 평화는 사랑, 동정, 이해, 참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평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⁵⁰⁾

세상이 취하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를 예를 든다. 1차 대전 때 사용한 독가스를 2차 대전 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보복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편도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진보나 발전도 아닌 것이다.

심지어는 평화주의자들 안에도 존재하는 미움을 지적하며 당시 군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을 보았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국가, 사회, 집단, 개인들 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없다고 보았다. 20세기의 여러 참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평화가 올 수 없고 친구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이 인간의 마음의 교만을 바꿀 없다고 보았다. 이 교만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박사는 말하고 있다. 바울이 유일하게

47) Ibid., 297p.

48) 그리스도 중심, 297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49) Ibid., 300p.

50) Ibid., 301-302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가를 이렇게 전한다.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복음이 단순한 것은 항상 문제의 뿌리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평화의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곧장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행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복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인간이 국가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⁵¹⁾

박사는 십자가가 인간의 말, 생각, 행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절망적인 실패자라는 점에 하나라는 것을 역설한다. 십자가가 모두 인간을 똑 같은 자리로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력함과 절망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의 화평을 얻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설교한다.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용서받고, 함께 은혜로 영적생명을 공유하게 된다.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결책이 십자가임을 이야기한다.

여러 분은 그 잔인한 암살범이 델러스에서 행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 여러 분은 신랄한 미움을 갖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가증한 일로, 분열을 일으키고 막힌 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람들과 국가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진실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⁵²⁾

7. 말씀 선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에서 박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따라서 감정을 조작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하며 구원하는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찰스 피니와 같이 즉석에서 결단하게 하는 방식을 거부했다. 삶과 영혼을 다루는 성경은 시대에 구애받을 수 없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죄의 속성과 양상은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복음이 실제적이 되는 것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사람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복음의 적실성과 전도의 효과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의 노력, 방법에 좌우되지 않음을 확고하게 믿었다.⁵³⁾

박사는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호출 대상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처한 상태를 물으셨듯이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죄인 자신이며 사

51) 그리스도 중심, 306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52) Ibid., 314-315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53) Martyn, 70p.

람은 인격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상, 철학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을 헤치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 박사는 이를 일대일 대면, 호출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호출하셔서 사람이 처한 실상, 처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복음과 설교의 사명은 사람들이 처한 자리, 상황을 똑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구원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다.⁵⁴⁾ 복음의 메시지는 교회 와서 긴장을 풀고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며 다가오는 것이다.

박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아담을 예로 들면서 주님이 이들이 처한 자리를 직접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한다. 사마리아 여인과도 주님은 결국 여자 자신이 누군지에 초점을 돌리셨다.⁵⁵⁾ 음란한 삶을 추구한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이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법을 위반해서 반역을 저지른 것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 오셔서 깨우치셨다. 지금 성령께서 이 사역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박사는 책망하시는 성령이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역할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 가져올 오류를 주의하라고 말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점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사람이 만든 장애물(설득시키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했다.

복음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힙니까? 자, 죄의 참된 본질을 가르침으로 밝힙니다. 방금 다룬 다윗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의 무서운 점, 그 죄를 죄 되게 만든 점은 단순히 간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 물론 그것도 충분히 악한 일이었지만 - 하나님을 거스른 데 있었습니다. ...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 그러나 정작 죄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은 누구나 이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⁵⁶⁾

복음은 죄와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문제, 수고와 고통을 다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은 나뭇의 낙원을 성취하려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될 길은 없다고 단언하셨다. 유일한 해결책은 자신이 숨은 데서 나와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영혼에게 함께 하신다. 복음이 없이는 심판대 앞에서 자신에게 죄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듣게 될 것임을 박사는 강조한다.

오직 절박한 사람만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스스로 의사가 필요한 병자임을 아는 사람만 나아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치료해 줄 의사가 한 분 계십

54) Ibid., 70p.

55) 그리스도 중심, 334p.

56) Ibid., 336-337p. (네가 어디 있느냐, 1948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니다. ... 하나님이 숨은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지 정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정죄를 믿고 인정할 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⁵⁷⁾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이렇게 항상 교리로 시작한다. 해결책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삶의 전략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임을 설교에서 말한다. 이 땅에서 살아갈 본질적인 전략이다.

절대로 땅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에서 시작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편이 말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 우리가 항상 시작해야 하는 위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를 이 관계를 망각한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 세상,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⁵⁸⁾

8. 박사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삶과 선교

박사는 기독교에 무관심한 시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구별된 삶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사는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행동 지향적인 시대에 원리를 망각하고 곧바로 행동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한다. 시간낭비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망각하고, 이를 다루지 않고 세상에 뛰어드는 대표적인 것이 정치라고 보는데 이것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으로 보았다. 죄가 표현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과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것이라 보았다.⁵⁹⁾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새로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다.⁶⁰⁾

성도가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품고 세상에서 살 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사람과 접촉하며 산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⁶¹⁾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었다.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초조, 긴장, 동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대, 혼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고, 우리는 그것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확인합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 이 불안감이 이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현시대는 마약, 신경안정제, 약물로 살아야 하고 잠을 자기 위해 인위적인 수단

57) Ibid., 342p.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963 “십자가”)

58) 그리스도 중심, 353p.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1967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59) Martyn, 102-103p.

60) Ibid., 105p.

61) 그리스도 중심, 434p.

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 세상의 이런 상태와 정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과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⁶²⁾

로이드 존스 목사가 살던 시대도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정신이 와해되는 불안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에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박사는 스토아시대의 철학자들의 자살률이 공동체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음을 언급한다.⁶³⁾ 성도에게는 내적인 평강이 실체로서 드러난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내적 평강과 안식을 가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⁶⁴⁾ 평강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자질이기 때문이다. 박사는 불안의 시대에 이렇게 비신자와 구별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질은 세상일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기쁨을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생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천국의 영광을 주목하는 자라고 말한다.⁶⁵⁾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인상을 주는 자로 세상에서 살도록 설교하고 있다.

9. 결론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에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이 죄로 죽은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설교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며 메시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에 나타나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총체적이며 협소하다. 부차적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 그 방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음의 포괄성을 강조한다. 세상의 모든 상황에 적합하며, 사람의 지정의를 포괄한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한다. 감정,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복음은 실제적인 순종, 성화의 과정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을 이야기한다. 순서의 흐름을 매우 강조한다. 상황에서 시작하거나,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 삶이 결여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교리)가 마음에 자리 잡히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불안의 시대에 자연인에게는 없는 평안의 인상을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로 이어되는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박사의 설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62) Ibid., 436p.

63) 그리스도 중심, 437p.,

64) Ibid., 440p.

65) Ibid., 449p.